

누리봄다함께키움센터

사업명	다함께돌봄사업 방과후 초등돌봄시설 다함께키움센터
추진기관	강남구청 여성가족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일원스포츠클럽센터 1층
규모	685.79㎡
개소일	2022. 3. 21.
건축사	전이서 _ 전아키텍츠건축사사무소

동네의 키움센터는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야 할 시간에 부모의 부재로, 그 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초등 학교 아이들이 머무는 곳이다.

‘특별한 나의 집’은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다른 형태의 집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어린 세대들에게 특별한 집과 마을의 경험을 주기 위해 시작되었다. 집과 학교를 오가는 사이 시간에 아이들이 센터라는 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공간에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아이들의 스케일에 맞는 작은 집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자신의 집이 되고, 그 작은 집들이 어우러져 있는 공간에서 아파트 키즈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마을의 공간적 경험을 간접적으로 주고자 하였다.

주로 동적공간과 정적공간이 정확히 분리되어 있는 기존의 키움센터 구조에서 미끄럼틀이 있는 놀이공간과 아이들이 책을 보면서 쉴 수 있는 정적인 공간을 함께 두면서 그 경계를 지웠다. 또한 이 복합공간에 아이들이 저마다의 공간의 이름을 부여하고 자신만의 장소를 갖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했다.

주로 배식의 형태를 띠는 기관이나 센터의 식사간도, 아이들이 주말이면 부모님과 함께 가고 싶어 하는 캠프를 식당의 공간에 들여와 식사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하는 캠프의 경험을 느끼게 하고, 놀이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주려 하였다.

아이들이 스스로 부여하는 공간이 되길 기대하는 ‘특별한 나의 집, 그리고 친구들과의 함께하는 마을’이 본 프로젝트의 기획의도이다.

동적 공간과 정적 공간을 완벽히 나누지 않는, 다양한 스케일의 집의 구성과 단층의 변화로 만들어진 도서대 등으로 쓰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하여 아이들에게 그들만의 특별한 시간과 기억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1. 진입공간의 사물함에도 '집'의 콘셉트를 확장해서 적용. 마치 유럽도시에 작은 건물이 세워진 이미지에서 출발했다. 사물함이지만 자신의 물건을 넣는 특별함을 선사하고 싶었다. 그 뒤로 네트와 구름형상의 조명으로 구름방을 마련하여 평소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2. 아이들에게 식당이 아닌 캠프를 상상할 수 있는 자연공간으로 구성하여 집과 학교가 아닌 곳에서 식사를 하는 특별한 경험을 부여하고, 아이들의 상상놀이터로도 겸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3. 정적공간에 해당하는 스터디룸은 홀쪽으로 기하학으로 뚫린 벽체로 그 경계를 연결하고, 정적공간이 기존의 단순한 공부방 형태를 탈피하여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부여하는 공간을 제공한다.